

2022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3. 22. 15시	화상회의	8/10	3	-	11		○	

o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정의식 위원
정경모 위원, 유환익 위원, 김희중 위원,
문해주 위원, 이현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정내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	-	-	9	-	9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9	-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지난해 청년층 아파트 매입비중 최대치...서울40%대>(2/6)2월6일 NEWS15시간을시청했습니다. <신규확진3만8,691명... 누적100만명 돌파>) 팩스로비드(PAXLOVID)알약화면이 계속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보도하는 단신에서 코로나관련 팩스로이드 리포트화면이 사용되어 15초가량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해서 방송이 나오고 난후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화면이 나왔습니다. 뉴스진행시에 실수로 보여졌습니다.그 이후 NEWS15 방송은 자연스럽게 뉴스진행이 되었고 15시 45분쯤 15시뉴스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쉬운점은 뉴스진행을 하면서 앞의 관련 없는 리포트 화면이 방송된것을 짧게라도 방송진행이 부드럽지 못해 양해의 말씀을 아나운서가 양해 클로징멘트를 전달하고 종료하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박찬재위원)</p>	<p>2월 6일 <뉴스15> 시간에 방송된 부분 중에서 영상이 잘못 나온 부분 이 15초나 됩니다. AD가 영상 플레이를 잘못된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2, 3초면 해결이 되는데 15초까지 갔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얼마전 경력으로 입사한 PD가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장하다 보니까 조치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뒤 바로 시청자에게 사과했어야 했지만 그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해당 PD에 충분히 주의를 줬고 해당부서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p> <p><22.2월 조치></p>	<p>‘22.2월</p>
<p>보도</p>	<p>정책과 공약 중심의 대결, 과연 어느 후보가 보다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능력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각 후보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경모위원)</p>	<p>정치부에서 4쪽지로 분야별 공약 비교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기타(문화포함)로 분류한 리포트의 기타 분야에 들어 공약을 비교해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p> <p><22.3월 조치></p>	<p>‘22.2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1. 01. 01.~ '22.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 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전)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맨 위원	-	18.7.1.~22.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전)닐슨컴퍼니코리아 사회공공팀장	-	21.11.01~23.10.31
김창숙	1973.3.26	(현)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전)송실대학교 초빙교수	-	19.1.1~22.12.31
안호림	1977.7.30	(현)인천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전)경기대학교 시간강사	-	21.01.01~22.12.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3.9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국민의 힘이 광상도 의원의 자진사퇴로 재보선을 치르게 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한데 이어, 기자가 "하지만 곧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돼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략) 이에 국민의 힘은 김최고위원을 겨냥해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3.9 재보궐 선거에서 탈당 후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 후 복귀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입장과, 무소속 출마 후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만을 방송하였다. 확인 결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월 30일(일) 저녁, SNS를 통해 대구 중남구 지역구 출마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합뉴스TV는 1월 30일 '뉴스 21' 프로그램(21:00~22:00) 및 후속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힘 김재원, 대구 보궐선거 출마의사 철회> 제하의 보도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를 이미 소개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2월 1일 보도에서는 김최고위원이 계속 출마할 것으로 다르게 보도하여 혼선을 일으켰다.(권혁남위원장)</p>	<p>해당 리포트는 설 연휴 기간(2.1) 방송하기 위해 연휴 시작 전에 미리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를 번복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를 해서 방송되지 않도록 하거나 리포트를 수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03.02 러시아 7개 은행과 거래 중단...러 국고채 투자도 금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p>	<p>우크라이나 관련 리포트 자료 화면 중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된 것은 작은 글씨의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영상을 편집하면서 벌어진 일</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을 공식 표명하고 우선 러시아 주요 은행들, 또 이들의 자회사와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동 방송시간은 총 1분 57초로 방송화면 중 방송 시작 1분 23초부터 약 1~2초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작은 글씨라 모르고 지나쳤으나 주변의 몇몇 지인들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 확인하니 해당 부분에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작은 글씨이지만 시청자들이 볼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후 방송시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부분을 인식하고 화면을 수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화면 하나하나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찬재부위원장)</p>	<p>입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각종 문자나 기호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4월은 과학의 달이고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계의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나 전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과학의 날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새 정부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는 만</p>	<p>4월 과학의 날, 과학의 달과 관련해서 과학 쪽의 기획이라든가 집중적인 보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포함한 관련 기사들을 좀 더 자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콤 연합뉴스TV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련 내용을 준비해서 보도해주길 희망합니다.(문해주위원)</p>				
<p>보도</p>	<p>3월 17일 밤 11시쯤,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 및 의사 부족으로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는 당연히 소아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진료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 갖고 양성 환자만 보는 데도 있고 음성 보는 데도 있고 열나면 무조건 음성 양성 가리지 않고 안 보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응급산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 규모가 많이 벌어지는 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반쯤에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목사 부인인데 수일 내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로 다 돼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진통이 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양성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잘 방법을 모르겠다고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양성 환자만 이제 보는 바람에 그걸로 연락해서 이런 케이스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입원해서 곧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큰 문제없이 잘 태어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한 달 반쯤 됐는데 2주 전쯤에 또 하나는 코로나 양성인데 28주였어요. (정의식위원)</p>	<p>코로나 감염 만연 속에서 응급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진료 공백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계도 차원에서라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나 경제부에서 적극 검토해 리포트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p>	○		
<p>보도</p>	<p>도념은 '2030 젠더 갈등'..."정치권 책임"(2022-03-14),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피해자 위축 우려도(2022-03-15)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표심을 얻기 위해 화합보다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투표 결과에서 표로도 나타났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사회의 숙제로 던져진 가운데 그 책임의 정치권에 있음을 제목으로 드러낸 시의 적</p>	<p>이번 대선에서 성별에 따른 갈등 문제, 특히 20~30대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으로서 당연히 성별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만, 갈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대다수 청년들의</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절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분42초 분량으로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에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고 취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성평등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각자의 경험이 달라 서로 차별받는다 느끼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특정플랫폼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표출되는 의견이 청년들의 생각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용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이현숙위원)</p>	<p>어떤 목소리처럼 보도하는 문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그게 손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p>			
<p>보도</p>	<p><코로나 확진자 개인보도 자제 필요> 지난 3월6일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확진...오는 12일까지 재택치료” 제목으로 홍 부총리의 코로나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음, 홍 부총리가 비서실에 유증상자가 발생한 뒤, 코로나19 간이 진단 및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 받았다는 내용과 특이사항이 없고 자택에서 격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앞서서 김부겸 총리도 재택치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음, 코로나가 전세계적 이슈이고 국민들 주요 관심사항이기는 하지만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코로나 감염소식을 뉴스에서 상세히 보도해야 하는지 의문시</p>	<p>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란 측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특히 장관급의 코로나 확진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측면보다는 해당 장관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서 공개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는 개인의 확진 차원을 넘어서 본인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특히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각 부처 주요 인사 등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됨, 정부부처 장관이 비록 공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유환익위원)				
보도	<화면 구성 단순화 필요> 현재 연합뉴스TV의 뉴스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뉴스제목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연합뉴스TV로고와 확진자 현황판, 그리고 아래 자막으로 뉴스코너 이름, 인터뷰나 뉴스의 내용의 자막이 있고, 맨 아래 시계 및 뉴스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되어 있음, 한 화면에 주요골자, 확진자 전체 현황 및 지방별 현황, 뉴스코너, 인터뷰이 정보, 뉴스내용, 시간, 날씨, 기타 뉴스 등 9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지고 메인뉴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의 화면구성을 했겠지만 좀 단순화하여 메인뉴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확진자 현황은 과감히 지우고, 기타 뉴스 자막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형식이 아니고 스크롤 방식으로 잠시 멈춰다 사라지는 형식, 시간대별로 화면 구성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유환익위원)	화면에 한꺼번에 표출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는 오히려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청자들이 필요한 정보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뉴스전문 보도채널로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견지하고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인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단순화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보도	"카네기홀 무대에 대타로 선 조성진에 '기적 같은 연주' 찬사"라는 헤드라인으로 연합뉴스TV에서 3월 1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이후 출연이 취소된 러시아 연주자의 대타로 지난 2월 25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선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해 미국 언론이 찬사를 보였다고 보도하며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숙련된 음악을 들려줬고, 기적같	조성진 카네기 공연은 다들 만한 층분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영상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진이나 예전 자료 영상을 갖고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뉴스 밸류가 있는데 영상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리포트는 1분 반이나 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은 연주 솜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진은 클래식계의 BTS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고 특히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모든 연주자의 꿈과 같은 무대입니다. 이번 연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연주로 충분히 화제가 되고 뉴스밸류가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매체에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정경모위원)	기 때문에 영상이 없으면 사진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신은 짧기 때문에 사진과 자료 영상으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	지난 3.11일 보도된 '여론조사 신뢰도 추락, 엇나간 민심 측정 왜?'라는 리포트인데요. 대선 직전 많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거나 오차범위 안이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의 승부여서 당락을 맞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격차는 실제와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은 자동응답과 전화면접 같은 조사방식의 문제점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조사기관이 난립해 조사결과의 편차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심지어 대선판의 '플레이어'로 행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야기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계식, 나열식 보도를 지양하고 조사 방법과 표본 특성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정교한 언론보도까지 주문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선을 3일 앞두고 프로그램을 방영해 여론	이번 대선기간 여론조사가 특히나 많았고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오락가락 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좀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들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사 방식이라든가 조사 기관의 신뢰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해서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조사의 문제점을 짚고 왜곡되지 않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다는 점과 대선 이후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는지를 파악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경마식 언론보도 태도도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민심을 투영하기보다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보도였고, 대선직후 즉시 여론조사 결과까지 추적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이유있는 비판은 반드시 시정되어 민심의 왜곡은 물론 상향식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김희중위원)</p>				